

최 고 서

방희재 귀하

서울 성북구 정릉2동 567(1층 신양철물점)

1. 본인은 법원 경매절차를 통해 서울 성북구 정릉2동 567 대 180㎡ 및 위 지상 2층 건물(주택 및 점포)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소유자입니다.
2. 귀하는 대항력 등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임차인이면서 위 건물 1층을 무단점유 하고 있으므로 이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로 1층 건물 부분을 본인에게 무위 인도해 주실 것을 최고합니다.
3.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거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31일

발신자 전 태 수



서울 성북구 삼선로 53